

Beautiful Grace in Poipet Cambodia

2020.2월 선교편지

썩 썩바이~! 안녕하세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분을 만날 수 있는 곳, 캄보디아 포이펏에서 이기원, 이규연 선교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도 몸은 이 곳에 있지만 매일 뉴스를 보며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상황을 동일한 마음으로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포이펏은 국경지역이다 보니 외국인들의 통행도 많은 곳이라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는 급식사역을 일정기간 중단해야하나 하는 고민을 여러번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변함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배고픔과 가난입니다. 오늘도 400여명이 넘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어쨌든 브레아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귀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빈민촌 및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앵벌이 하는 어른 및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세 번 저녁에 나가 빵과 물을 나눠주는 ‘빵 나눔’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라지지 않는 긍휼한 마음과 열망으로 오랜 기간 기다리며 기도한 끝에 헌금과 후원금이 모아져 오븐설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넓힐수록 책임과 부담은 커지지만 급식사역도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수많은 성도님들과 교회들, 단체들을 통해 채워지는 것처럼 빵 나눔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나눠지고 남을 줄 믿으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빵 나눔을 시작하며 기존에 있던 리어카 오토바이 한 대로는 어려워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나눴더니 얼마전 포이펏을 다녀가신 집사님께서 흔쾌히 오토바이 비용을 헌금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22명이 일대일 아동결연을 통해 엄마이자 아버지이자 이모이자 삼촌이 생겨 매달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학비와 쌀, 식료품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극빈한 가정의 아동을 우선적으로 맺어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아동결연을 통해 사랑의 열매들이 맺힐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필요와 상황을 따라 믿음으로 동참해주시는 귀한 분들이 계시기에 모든 사역이 은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신15:11



유치원, 방과 후 교실, 초등1학년 과정, 태권도 수업, 한글교실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교복을 입고 센터에 찾아와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빗자루질을 하기도 하고 조잘조잘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개구지게 장난치며 뛰어다니기도 하고 책상에 앉아 공부도 하는 아이들에게 저희 센터는 기쁨이요 삶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40분여를 운전해 오셔서 한글을 가르쳐주시는 어느 선교사님 내외분의 섬김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배우고 공부하며 잘 자라서 빈민촌을 벗어나게 되길, 캄보디아를 발전시키는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해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도 할렐루야’ 시117:2

센터에 가면 약도 주고 치료해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저희 센터는 이제 준 의원급 병원이 되었습니다. 비록 자격증 없는 돌팔이 이기원 의사이지만 간단한 처치부터 심한 상처까지 다양한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처였지

만 방치되고 굶아서 심해진 상태로 오는 아이들은 슬하고, 얼마 전에는 부모도 없는 16개월 아기가 왼팔에 심한 3도 화상을 입고 할머니에게 안겨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병원비가 없어 병원에서 수술직후 쫓겨난 아주머니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각하고 어려운 환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당혹스럽지만 한국에 계신 의사 집사님들의 조언과 처방으로 위기를 잘 넘기며 치료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회복되는 저들을 볼 때 참으로 보람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이 저들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처럼 기도해 줄 수 있어서 영광이고 또 감사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약5:15



태안장로교회의 두 분 집사님의 귀한 헌금으로 센터 바로 앞에 시작되었던 교회 건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완공되면 이전보다 더 쉽게 교회에 드나들 수 있고 더 많은 인원이 예배드릴 수 있으니 그동안 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몰려와 복음을 듣고 전도케 되는 일이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어른들이 살아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의 마음들이 일어나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게 되기를, 지금은 주일예배에 아이들이 대다수이지만 앞으로는 청년들과 어른들, 어르신들도 많이 모여 모두가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겔11:19-20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11개월 된 저희 딸 아린이가 캄보디아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땅한 병원이 없는 곳이라 돌 전에 오는 것에 대한 염려가 컸었는데 못된 모기들과 땀띠 말고는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린이가 캄보디아에서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늘 생명싸개로 보호해주시길 저희 가정에 건강의 복을 늘 부어주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지난 홍수이야기와 다녀가셨던 선교팀 이야기 등 나누고픈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뒤로 하고 인사드립니다. 이 곳 포이펫과 저희를 기억해주시고 기도로 또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많은 동역자 분들이 계시기에 이렇게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해주시고 성령 안에 교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코로나로 인한 위기상황이 한국교회의 기도와 눈물가운데 잘 극복되고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이기원, 이규연 선교사가 매일 기도와 말씀가운데 성령충만 하도록
2. 아린이가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3. 모든 사역이 하나님 뜻 가운데 진행되도록
4. 필요한 재정과 함께하는 이들 끊이지 않도록
5. 우리 센터와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도록
6. 포이펫에 제대로 된 병원이 세워지도록

카카오톡ID cambodiale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iwon.lee.96155>